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寫經變相畫의 研究

A Study on Frontispiece Painting of Lotus Sutra
in the National Palace Museum in Taiwan

趙秀珍(Cho, Soo-Ji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變相畫의 樣式 |
| 2. 寫經의 現狀 | 5. 맺음말 |
| 3. 變相畫의 主題內容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논문은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으로 至順元年(1330)에 제작된 元代寫經인 紺紙金字「妙法蓮華經」 7권본 1부 寫經變相畫에 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 현존하는 裝飾寫經의 수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작품성 면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中國의 경우는 현존하는 版經의 예는 적지 않지만 사경은 확인된 예가 많지 않아 동아시아 사경의 비교연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故宮博物院本 「妙法蓮華經」 寫經變相畫를 중심으로 元代寫經의 체제와 현상을 살피고, 아울러 사경변상화의 주제 내용은 경전과의 대조작업을 통해 철저히 분석하였다.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은 같은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과 고려사경 변상화와와의 비교를 통해 이 작품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밝혔다.

要語 : 묘법연화경, 사경변상화

* 대구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과 강사(picorina1@nate.com)

접수일: 2007년 9월 9일 최초심사일: 2007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07년 9월 14일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transformation pictures(變相畫) included in the first chapter of the 7th volume of the sutra copy of the 「Lotus Sutra(妙法蓮華經)」, which was written in gold letters on a dark blue paper and produced in Chinese Yuan Dynasty(元代). This sutra copy was produced in the first year in the reign of Emperor Zhishun(1330)(至順元年) and is currently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Taiwan. In Japan and Korea, there exist many sutra copies, and their artistic values have been well recognized. In China, however, while there are many sutras printed from woodblocks, but not many sutra copies are known to still exis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conduct a comparative research on sutra copies among East Asian countries.

In this study, examined are the system and present state of the sutra copies produced in Chinese Yuan Dynasty, centering on the transformation pictures in the copy of 「Lotus Sutra」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in Taiwan. Also, the themes represented in the pictures are thoroughly analyzed in comparison with the text of sutras. An analysis of the style of this particular transformation picture proved its unique value, when compared with the pictures from another sutra copy produced in the same period, and currently held at Tokugawa Art Museum(徳川美術館) in Japan, and the sutra copies produced in the Goryeo Dynasty.

Key words : Lotus Sutra, Frontispiece Painting, Transformation Pictures

1. 머리말

染色紙에 金·銀泥를 사용하여 經典을 書寫하고 變相畫가 그려진 裝飾經은 동아시아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高麗와 朝鮮 初期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장식경이 매우 발전하여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日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平安時代에 제작된 延曆寺本이나 中尊寺本 寫經變相畫에서 보는 바와 같이 紺紙에 金·銀泥의 線描로 장식된 사경이 다수 현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中國 宋·元代의 경우는 현존하는 版經의 예는 적지 않으나 寫經의 예는 드문 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중국의 장식경 가운데 가장 이른 예는 1978년 4월 蘇州市 盤門 안에 소재하고 있는 瑞光寺塔 내에서 발견된 紺紙金字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로 제7권 발원문에 吳의 顯德 3년(956)이라는 기년이 나온다.¹⁾ 이외에 紺紙에 金·銀泥를 사용한 장식경의 유례로는 至元 28년(1291)에 제작된 日本 京都國立博物館 소장 紺紙金銀字 「大方廣佛華嚴經」 제71권·제72권·제73권·보현행원품(이하 京都博物館本이라고 칭함)과 日本 德川美術館 소장 紺紙金字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이하 德川美術館本이라고 칭함)가 남아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발견된 중국 장식경의 수가 매우 적은 현실 속에서 제작 연대가 확실한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紺紙金字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이하 故宮博物院本이라고 칭함)는 서사형식이나 변상화의 화풍에서 볼 때 중국 장식경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²⁾

1) 蘇州市文管會·蘇州博物館, 「蘇州市瑞光寺塔發見一批五代, 北宋文物,」 「文物」 第282號 (文物編輯委員會, 1979. 11), 21-31. 채색을 사용한 장식경의 경우 五代의 後梁 貞明 6년(920)에 제작된 예가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神田喜一郎, 「中國の裝飾經について,」 大和文華, 第50号(大和文華館, 昭和 44年), 1-7.

2)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紺紙金字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유물번호: 故佛 592-598)에 대해서는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던 중 경북대학교 남권희 교수로부터 「妙法蓮華經 圖錄」을 입수하여 작품분석을 하였는데 직접 조사하지 못한데 대한 아쉬움이 컸다. 이후 경북대학교 최정 교수의 도움으로 國立故宮博物院으로 편지를 내어 조사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았고, 은사인 대구가톨릭대학교 권희경 교수와 日本 九州大學 井手誠知 輔 교수의 도움으로 2007년 1월에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조사기간 동안 國立故宮博物院의

이 글에서는 먼저 故宮博物院本 紺紙金字「妙法蓮華經」의 현상을 살펴 元代 寫經의 체제 및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며, 아울러 사경변상화의 주제내용 및 양식 분석을 하여 같은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과 고려사경 변상화와와의 비교를 통해 이 작품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元代寫經과 고려사경의 연관성과 독창성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2. 寫經의 現狀

故宮博物院本 사경은 姚秦·鳩摩羅什이 번역한 「妙法蓮華經」을 紺紙에 金字를 사용하여 7권본 1부로 書寫한 것이다. 이 사경은 각권의 卷尾에 있는 牌記에 의해 至順元年(1330)에 제작된 것과 아울러 經文은 永壽禪寺의 住持인 元浩가 書寫하였고, 變相畫는 孤雲處士 王振鵬(1280~1329)의 門人이었던 朱瑤가 그렸음이 밝혀졌다.³⁾

사경의 크기는 세로 37.0cm, 가로 15.8cm이며 折帖本을 이룬다. 變相畫의 크기는 세로 30.5cm, 가로 89.0cm로 같은 元代寫經인 京都博物館本이나 德川美術館本에 비해 가로길이가 매우 길다.

이 사경의 체제는 1면 5행이며 1행 18자로 寫成되어 있어 德川美術館本 뿐만 아니라 대부분 1면 6행에 1행 17자를 이루는 고려사경의 체제와도 차이점을 보인다.

변상화는 각권의 卷頭에 金泥로 총 6면에 걸쳐 그려져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화면의 오른쪽에는 釋迦說法圖인 靈山會上圖가 그려지고, 화면의 왼쪽에는 각권에 해당하는 경전의 내용이 圖解되어 情景의으로 표현된 說話圖가 그려지는 형식을 보여준다.

연구원인 陳韻如 씨에게도 많은 배려와 도움을 받았다.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3) 발원문과 畫師 朱瑤에 대해서는 권희경, “故宮博物院 소장 元代 法華寫經의 高麗的 영향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37집(2007. 9)에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이렇듯 각권의 卷頭に 총 6면에 걸쳐 변상화가 그려진 예는 南宋 말에서 元代 에 제작된 日本 大東急記念文庫 소장 「版本法華經」과 日本 西大寺 소장 版本法華經」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⁴⁾<그림 1> 2점 모두 折帖本으로 1행 18자를 이루고 있어 이 역시 故宮博物院本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日本 西大寺 소장, 「版本法華經」, 南宋~元代

변상화의 테두리는 금니의 태선-세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묘사는 유려하고 정교한 필치를 사용하여 화려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각권의 卷尾에는 총 4면에 걸쳐 화면 오른쪽에서부터 제1면·제2면에는 散花·寶華·樂器, 제3면에는 牌記, 제4면에는 護法神인 天部 圖像이 그려져 있다. 천부 도상의 경우 제1권에는 大功德天, 제2권에는 大辯才天, 제3권에는 東持國天, 제4권에는 南增長天, 제5권에는 西廣目天, 제6권에는 北多聞天, 제7권에는 韋馱天이 배치되어 있는데, 같은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의 경우 각권의 卷尾에 韋馱天 도상만이 나타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⁵⁾<그림 2>

표지의 경우 황색비단에 남색사로 문양이 짜여 있어 동질의 종이에 금·은니

4) 奈良國立博物館, 「東アジアの佛たち」(奈良: 奈良國立博物館, 1996), 203-204.

5) 故宮博物院本 사경의 경우 유물조사 때 사진촬영은 불허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도판사진을 轉載하였다.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妙法蓮華經 圖錄」(臺北: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1995.

로 연당초문을 표현하는 고려사경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천을 장식하여 표지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같은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 및 京都博物館本과 동일한 특징을 지닌다.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제5권	제6권	제7권
						
大功徳天	大辯才天	東持國天	南增長天	西廣目天	北多聞天	韋馱天

<그림 2>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卷尾 天部圖像, 至順元年(1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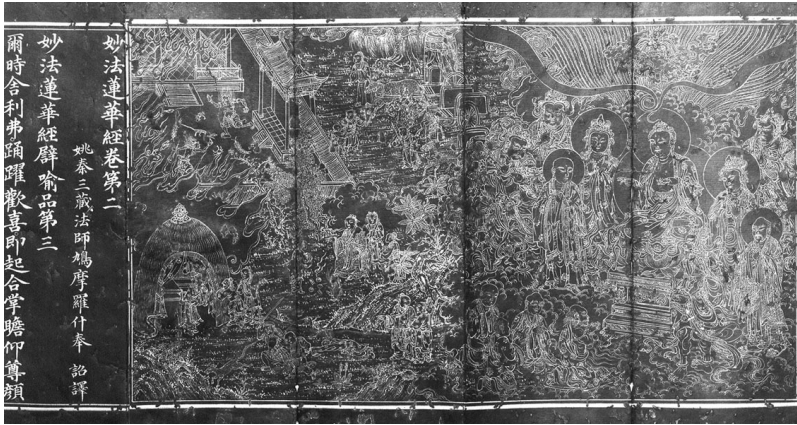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元代에는 故宮博物院本과 같이 총 6면에 걸쳐 변상화가 그려지고 사경체제가 1행 18자를 이루는 유형과 함께, 德川美術館本과 같이 총 4면에 걸쳐 변상화가 그려지고 사경체제가 1행 17자를 이루는 유형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妙法蓮華經 의 경우 卷尾에 韋馱天 도상이나 天部 도상이 등장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물론 고려 「妙法蓮華經」 사경변상화에 위태천 도상이 등장하는 예로는 충렬왕 20년(1294)에 제작된 日本 寶積寺 소장본으로 京都國立博物館에 寄託되어 있는 「妙法蓮華經」 제1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위태천 도상이 卷尾가 아닌 卷頭에 나타나 元代寫經 변상화와는 차이를 보인다. 또한 고려사경의 경우 충숙왕대 이후에는 卷頭의 위태천 도상이 사라졌다가 조선시대 판경변상화에서 다시 출현하게 된다.⁶⁾ 또한

6) 「妙法蓮華經」이 아닌 기타사경에서 위태천 도상이 등장하는 예는 공민왕 6년(1357)에 제작된 「大方廣圓覺修多羅義經」의 卷頭에서 찾아볼 수 있고, 조선 태조 6년(1397)에 제작된 「梵本聖觀自在大悲心總持功能依經錄」의 경전 중간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妙法蓮華經」에서는 충렬왕대 이후 사라진 위태천 도상이 기타사경으로 공민왕대 제작된 「大方廣圓覺修多羅義經」에서 되살아나 조선 초기에 제작된 「梵本聖觀自在大悲心總持功能依經錄」으로 이어져 조선전기 판경변상화에서 정착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화의 경우 천을 이용하여 장식하는 수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宋·元代 版經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중국 경전의 표지화 형식으로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3. 變相畫의 主題內容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寫經變相畫는 총 6면에 걸쳐 그려져 있지만 화면의 오른쪽에 說法圖가 등장하고 화면의 왼쪽에 說話圖가 등장하는 것은 德川美術館本과 동일하다.<그림 3> 다만 德川美術館本과는 달리 화면 오른쪽의 說法圖에 수미단이 표현되어 있어 고려사경 변상화의 설법도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⁷⁾



<그림 3> 日本 德川美術館 소장 紺紙金字 「妙法蓮華經」 제2권 變相畫, 元代

고려 후기 개인발원 「妙法蓮華經」 寫經變相畫에서 보이는 向右 說法圖, 向左 說話圖의 구성과 설법도에 수미단이 등장하는 것은 이미 宋代 版經變相畫에서

7) 고려사경 변상화의 설법도 가운데 日本 談山神社 소장 「妙法蓮華經」과 韓國 개인소장 「妙法蓮華經」 제5권·제6권 사경변상화에서와 같이 수미단이 표현되지 않은 예도 있다.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그림 4> 이 寫經變相畫의 구도는 宋代 「版本法華經」과 유사하지만 說話圖에 있어서 채택된 내용은 동일하지 않다. 이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경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는가 하는 것이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版本法華經」, 宋代

說法圖는 각권이 거의 같은 형식을 이루는데, 오른쪽에는 說法하는 釋迦如來와 菩薩, 弟子, 四天王 등이 釋迦를 에워싸고 있고 왼쪽에는 說法을 傾聽하는 聽聞衆들이 釋迦와 眷屬들을 향하고 있어, 釋迦眷屬과 聽聞衆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게 配置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說法圖의 구성은 거의 같지만 권속의 수와 聽聞衆의 수, 종류, 자세 등에서는 각권마다 조금씩의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권의 사경변상화에 표현된 圖像과 內容을 경전과 대조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3.1 제1권 변상화<그림 5>

먼저 화면 오른쪽에 그려진 설법도를 살펴보면 釋迦如來는 香爐가 놓인 佛卓

을 앞에 두고 연화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그림 5>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제1권 변상화, 至順元年(1330)

내밀고 왼손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얹어 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석가 좌우에 迦葉과 阿難, 각 2구씩의 四天王, 석가의 왼쪽에 4보살이 에워싸고 있고 수미단 위에는 설법을 듣는 수많은 聽聞衆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 가운데 佛卓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比丘는 舍利弗인 것으로 보인다. 眷屬들과 聽聞衆 사이에는 德川美術館本과 마찬가지로 사자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고려사경 변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으로 매우 독특하다.

설법도는 「序品」 중에 설해져 있는 靈山會上의 장면이 그려진 것이며, 如來의 頭頂으로부터 뻗어나간 光明은 제6면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序品」 중에 범회의 祥瑞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光明 내부와 放光 중에는 散花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序品」의 내용을 그린 것이다. 散花에 이어서 光明 중에는 「序品」 가운데,

그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고, 부처님이 설하시는 경전의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열반에 드신 후에 부처님의 사리로써 칠보탑을 세우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⁸⁾

의 내용을 표현한 설법을 하고 있는 여래와 설법을 듣는 인물, 열반에 든 석가열반

8) 내용분석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권희경, 「고려의 사경」 (서울: 글고운, 2006) 참조.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1권, 「序品」, 2b.

상과 침상 주변에 인물, 탑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인물 등이 그려져 있다. 열반상 아래에는 「序品」 가운데,

어떤 보살들은 난간과 화개로 잘 꾸민 네 마리 말이 끄는 보배 수레를 보시합니다.⁹⁾

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칠보탑 옆에는 「序品」 중 보살행의祥瑞를 그린 것으로 左向하고 나무아래 앉은 보살의 白毫로부터 나온 光明이 비추는 곳에 阿修羅가 있고, 아래쪽으로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아귀와 말과 소가 그려진 축생, 牛頭人身의 병졸을 등장시켜 지옥도를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수미단 옆에는 「方便品」의 계송 가운데

여러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이 천만 억의 탑을 세울 때 금과 은과 파리와 자거와 마노와 매피와 유리와 진주 등으로 만들고 아름답고 훌륭한 장엄거리로써 찬란하게 탑을 꾸미며... 이런 사람들은 모두 이미 成佛하였느니라.¹⁰⁾

의 내용을 그린 것으로 화려하게 장엄된 보탑 속에 여래가 배치되고 여래의 앞에는 2명의 공양자가 표현되었다. 그 옆에도 역시 「方便品」의 계송을 그리고 있는데, 연화좌 위에 앉아 설법을 하는 여래를 향해 합장을 하고 있는 사부대중들이 표현되어 있다.

제5면 하단은 「方便品」의 계송 중 小善成佛에 관한 내용을 그린 것으로 탑을 향해 공양을 드리는 아이들이 표현되어 있다. 제6면 하단에도 역시 「方便品」의 계송 중에 불화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그리고 있는데 불화를 그리는 畫師와 불화제작을 의뢰한 施財者가 묘사되어 있다. 그 아래쪽에는 「方便品」의 계송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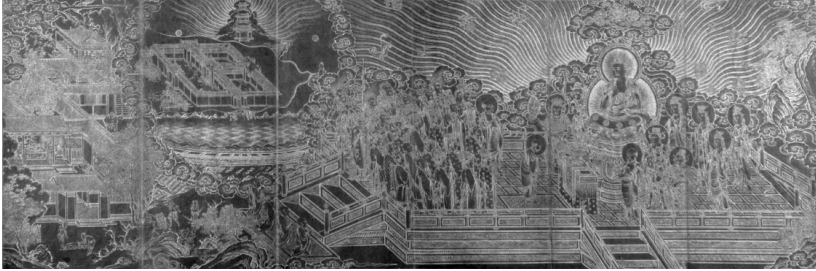
남을 시켜 풍악 울리고 북치고 소리불고 툽소와 저와 거문고와 공후와 비파와 징과 요령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음악으로 불상에 공양하였거나, 또는

9)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1권, 「序品」, 3a.

10)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1권, 「方便品」, 8c.

환희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노래하거나, 아주 작은 음성으로 공양하더라도 이러한 이들 모두 이미 成佛하였느니라.¹¹⁾
는 주악공양의 내용이 표현되어 있다.

3.2 제2권 변상화 <그림 6>



<그림 6>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제2권 변상화, 至順元年(1330)

화면 오른쪽의 설법도에서 釋迦如來는 香爐가 놓인 佛卓을 앞에 두고 연화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앞에 들고 왼손은 결가부좌 한 다리 위에 얹어 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권속은 석가 오른쪽에 阿難이 표현되지 않은 것과 聽聞衆의 수와 배치를 제외하면 제1권 설법도와 같은 모습이다. 수미단의 계단 아래에는 4구의 聽聞衆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四大聲聞인 須菩提·大迦旃延·大迦葉·大目犍連인 것으로 보인다.

放光 중에는 「譬喻品」 가운데

수많은 하늘의 풍악은 허공중에서 한꺼번에 연주하며 하늘의 꽃들은 비 내리
듯 합니다.¹²⁾

라는 내용이 표현되었다. 제5면의 상단에는 「譬喻品」 중

11)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1권, 「方便品」, 9a.

12)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2권, 「譬喻品」, 12a.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늙었으나 재물이 많았느니라. 그 집이 매우 크건만 출입문은 오직 하나뿐이고, 집과 누각은 넓았으며 담과 벽은 퇴락하고 기둥은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졌는데, 사면에서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모든 집들이 한창 타고 있었느니라. 그때 장자의 자제들이 그 집안에 있었지만 불이 난 것을 알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때 장자가 방편을 써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와서 갖지 아니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리라. 저렇게 좋은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지금 밖에 있으니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싶은 대로 주리라’하니까 아이들이 앞 다투어 불타는 집에서 나왔다… 그 수레는 높고 크고 여러 가지 보배로 꾸몄으며, 돌아가면서 난간을 두르고 사면에 풍경을 달았느니라. 또 그 위에 일산을 뿔으며 휘장까지 쳤는데 모두 진기한 보배로 장식하였느니라. 13)

라는 火宅의 비유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불이 난 저택의 문밖에는 코끼리가 끄는 화려하게 장식된 수레를 타고 있는 장자가 있고, 그 옆에는 우차, 녹차, 양차를 타고 있는 장자의 아이들이 있다. 화택 내부에는 鳩槃荼 귀신과 독사, 독충이 표현되어 있다. 제5면 하단에는 「譬喩品」의 偈頌 가운데

경전을 비방한 죄로 당나귀로 태어나면 항상 무거운 짐을 몸에 싣고 채찍을 맞으면서 오직 생각하는 것은 물과 풀 뿐이요, 다른 것은 모르느니라. 어떤 때는 승냥이가 되어 마을로 들어오면 몸은 헐어서 찢어지고 한눈은 애꾸가 되어 개구쟁이들의 발에 채이고 매를 맞아 갖가지 고통을 받다가 끝내는 죽게 되니라. 죽고 나서는 다시 구렁이의 몸을 받아 징그러운 몸의 길이가 500유순이나 되며… 만일 사람이 되더라도 여섯 감관이 압둔하며 난쟁이·곰배팔이·절름발이·맹인·귀머거리·뽕추가 되고…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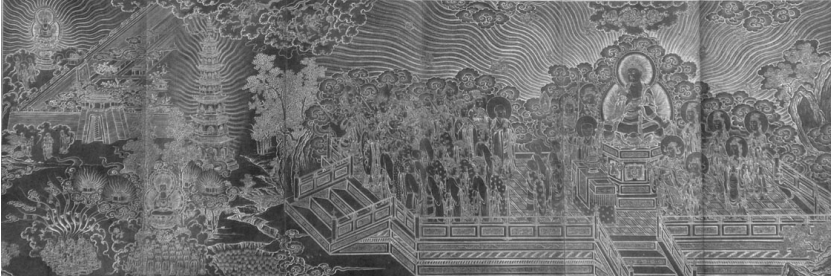
의 내용이 그려져 있는 듯, 왼쪽에는 짐을 실은 당나귀와 뒤에는 채찍을 든 인물이 표현되어 있고, 그 옆에는 맹인이, 그 아래쪽에는 승냥이를 쫓고 있는 2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 대각선 왼쪽에는 구렁이가 묘사되어 있다. 이는 경전을 비방한 罪報에 관한 내용을 그린 것이다.

제6면은 信解品 가운데 부유한 長者와 窮子 아들에 관한 비유장면으로 화면 중앙의 큰 저택 내부에는 부호인 장자가 사자좌 위에 위엄 있는 모습으로 앉아

13)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2권, 「譬喩品」, 12b-12c.
14)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2권, 「譬喩品」, 15c.

있으며, 화면 하단에는 장자가 사람들을 시켜 아들을 데려오게 하자 놀란 아들이 기절한 장면을 그리고, 화면 상단에는 장자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3.3 제3권 변상화 <그림 7>



<그림 7>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제3권 변상화, 至順元年(1330)

화면 오른쪽의 설법도에서 釋迦如來는 香爐가 놓인 佛卓을 앞에 두고 연화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앞에 들고 왼손은 배부분에 대고 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권속은 석가 왼쪽에 迦葉이 표현되지 않은 것과 佛卓 앞에 4구의 나한상이 배치된 것을 제외하면 제2권 설법도와 같은 모습이다. 불탁 앞의 聽聞衆들은 四大聲聞인 須菩提·大迦旃延·大迦葉·大目犍連인 것으로 보인다.

제4면과 제5면의 상단에는 藥草喻品 가운데 藥草의 비유 장면을 그린 것으로 구름 속에 雷神과 비를 뿜는 龍이 표현되고 구름 아래에는 무성한 초목을 배치하였다. 제5면에는 「授記品」 가운데

迦旃延은 마땅히 갖가지 훌륭한 공양거리로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리라. 그 부처님들이 열반한 뒤에는 七寶塔을 세워서 역시 꽃과 향으로 사리에 공양하다가 그 최후의 몸에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등정각을 이루리니... 大目犍連은 이 몸을 버린 뒤에 8200만억 부처님 세존을 받들어 섬겨서 佛道를 위하여 공양 공경하리라. 여러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는 七寶塔을 조성하는데 황금 刹竿을

높게 세우고 꽃과 향과伎樂으로써 여러 부처님의 탑에 공양하면서 보살의
도를 점점 구축하리라.¹⁵⁾
는 迦梅延과 大目犍連의 七寶塔 공양과 성불의 내용을 그리고 있다. 제5면의
하단에는 「化城喻品」 가운데

이때 500만억 국토의 범천왕들이 궁전과 함께 하여 각각 옷에 여러 가지
하늘의 꽃을 가득 담아 가지고 서쪽으로 함께 가서 그祥瑞를 찾았느니라. 대통
지승여래를 바라보니 도량에서 보리수 아래 사자좌에 앉으셨는데, 여러 천신·
용왕·건달바·긴나라·마후라가·사람·사람 아닌 이들이 공경하여 둘러 모
셨느니라. 또 16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청하였느니라. 그때 범
천왕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께 예배하며 수없이 들고 하늘의 꽃을 부처님
위에 흘렸느니라. 그 흘은 꽃이 수미산과 같고 아울러 부처님의 보리수에까지
공양하니 보리수의 높이가 10유순이었느니라. 꽃으로 공양하고 나서 각각 궁전
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고 말하였느니라.¹⁶⁾

는 내용을 도해한 듯 부처님이 앉은 양옆에는 높게 뺀 보리수가 표현되었고,
부처님 앞에는 여러 천신들과 在家衆들이 부처님께 꽃과 궁전을 받치고 합장하
고 있다. 제6면 하단에는 이 장면에 이어서 역시 「化城喻品」 가운데 부처님의
출가 전의 아들인 16왕자가 出家하여 沙彌가 되어 法床에 앉아 법화경을 설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제6면 상단에는 城이 표현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성으로 향해가는 5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化城喻品」 가운데 화성의 비유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화성 바깥쪽에 성을 향해가는 5명의 인물 중 앞선 이는 導師이고 뒤에 있는 인물
들은 導師를 따르는 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故宮博物院本 제3권 도상에는 「授記品」 가운데 大王饗膳의 비유장면이 생략
되어 있다.

3.4 제4권 변상화 <그림 8>

15)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3권, 「授記品」, 21c-22a.

16)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3권, 「化城喻品」, 23a-23b.

화면 오른쪽의 설법도에서 釋迦如來는 香爐가 놓인 佛卓을 앞에 두고 연화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으며, 수인은 禪定印을 취하고 있다. 권속은 석가



<그림 8>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제4권 변상화, 至順元年(1330)

오른쪽에 阿難이 표현되지 않은 것은 제2권 설법도와 동일하나 聽聞衆의 가운데 비구의 수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如來의 頭頂으로부터 뻗어나간 光明은 제6면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見寶塔品」 가운데

부처님께서 미간의 백호상으로 한 광명을 놓으시니 동방으로 오백만억 나유타 항하사와 같은 국토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러 국토의 땅은 모두 파리로 되어 있고, 보배 나무와 보배 휘장을 둘러치고 보배 그물을 위에 덮었습니다.¹⁷⁾

의 내용을 그린 것이다. 제5면 왼쪽 상단에는 「見寶塔品」 중 七寶塔이 솟아오르는 내용과 석가여래가 다보여래에게 앉은 자리를 나눠주는 내용, 시방제불의 飛雲의 내용을 묘사하였다. 따라서 불탑 안에는 釋迦·多寶如來의 二佛竝坐像이 표현되어 있으며, 탑의 왼쪽에 그려진 구름을 타고 있는 如來群은 다보여래의 보탑을 공양하기 위해 모인 시방의 제불을 표현한 것이다. 보탑 아래쪽에는 「見寶塔品」 가운데

17)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4권, 「見寶塔品」, 33a.

그 밖의 모든 천신과 야차와 건달바와 이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후라와
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 천만억 대중들이 온갖 꽃·향·영락·번기·일산·
풍류로 보배탑에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였습니다.¹⁸⁾
라는 천신들의 공양장면이 그려져 있다.

제5면 하단에는 「提婆達多品」 가운데 文殊師利菩薩이 大海의 용궁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제6면의 중앙 오른쪽에는 이야기를 나누는
2인의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提婆達多品」 중

내가 지난 옛적 한량없는 겁 동안에 묘법연화경을 구하기에 게으르지 않았으
며, 여러 겁 동안에 항상 국왕이 되어 가장 높은 깨달음을 발원하고 구하는데
마음이 물러서지 않았느니라... 그때 한 선인이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대승경이 있으니 이름은 묘법연화경이라, 만일 내 뜻을 어기지 않으면 마땅히
말하여 주리라'고 하였느니라.¹⁹⁾

는 국왕이 阿私仙人을 따라 出家하는 내용이 도해된 듯하다. 그 아래쪽에는 「提
婆達多品」 가운데 八世龍女의 成佛 장면을 그린 것이다. 즉 八世龍女가 그녀의
成佛을 믿을 수 없다는 智積菩薩과 舍利弗에게 成佛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석존
에게 보주를 바치는 장면이 매우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제6면 하단 왼쪽에는 「五百弟子授記品」 가운데

여러 비구들이여 잘 들어라. 불자들이 행하는 도는 방편을 잘 배웠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니라...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모두 다 성취케 하며 비록 욕망
이 적고 게으른 이라도 점점 닦아서 미래에 부처님이 되게 하느니라.²⁰⁾

는 五百弟子 授記의 내용이 圖解되어 있다.

故宮博物院本 제4권의 도상에는 「五百弟子授記品」 가운데 衣裏寶珠의 비유
와 「授學無學人記品」, 「法師品」, 「見寶塔品」 계송 중에 경전의 유통을 권하는
擔負乾草의 비유장면과 「勸持品」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18)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4권, 「見寶塔品」, 32b.

19)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4권, 「提婆達多品」, 34b.

20)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4권, 「五百弟子授記品」, 28a.

3.5 제5권 변상화 <그림 9>



<그림 9>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제5권 변상화, 至順元年(1330)

화면 오른쪽의 설법도에는 釋迦·多寶如來의 二佛竝坐像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從地涌出品」 가운데

이 모든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 나와서는 각각 허공으로 나아가 칠보탑 안에 계신 다보여래와 석가여래의 치소에 이르러 두 세존께 머리를 숙여 예배하였습니다.²¹⁾

의 내용을 圖解한 것으로 보인다. 釋迦·多寶如來는 향로가 놓인 佛卓을 앞에 두고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는데, 석가여래는 오른손은 가슴 앞에 들고, 왼손은 배부분에 대어 說法印을 취하고 있으며, 다보여래는 양손을 걸가부좌한 다리 위에 올려 禪定印을 취하고 있다. 그 좌우로 迦葉과 阿難, 菩薩, 四天王, 聽聞衆들이 둘러싸고 있으며, 佛卓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보살은 彌勒으로 추정된다.

여래의 頭頂으로부터 뻗어나간 여덟 갈래의 光明에는 「從地涌出品」 중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인 여러 부처님들로 한량없는 천만 억이나 되는 다른 국토에서 오신 이들이 8방의 보배 나무들 아래에 있는 사자좌에서 걸가부

21)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5권, 「從地涌出品」, 40a.

좌하고 앉아 있었습니다.²²⁾

라는 내용을 그린 것이다. 또한 여래의 광명상과 방광 중에 그려진 산화와 저절로 울려 퍼지고 있는 악기의 표현은 「分別功德品」 가운데

부처님께서 이 모든 보살마하살들의 큰 범의 이익을 얻은 일을 말씀하실 때에 허공중에서 만다라 꽃과 마하만다라 꽃비를 내려서 한량없는 보배 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좌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께 흘었습니다... 허공중에서는 하늘의 북이 저절로 울리니 아름다운 소리가 깊고도 멀었습니다.²³⁾

의 내용을 도해한 것으로 보인다. 제4면과 제5면 상단에 있는 寶幢 형태의 寶樹와 제5면에 표현된 누대와 전각은 「分別功德品」 가운데

사바세계의 땅이 유리와 같아서 평탄하고 반듯하며 閻浮檀金으로 여덟 갈래 길의 경계에 늘이고 보배 나무가 줄을 지어 있으리라. 모든 臺와 누각이 모두 보배로 되어 있고 보살 대중들이 그 안에 있으리라.²⁴⁾

의 내용을 그린 것이다. 제4면 중앙에는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는 10명의 보살상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從地涌出品」 가운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사바세계인 삼천대천세계의 땅이 모두 진동하고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에 있던 千萬億의 보살마하살이 한꺼번에 솟아올라왔습니다.²⁵⁾

라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제4면 하단에 등장하는 무수한 인물들은 10명의 보살들이 용출할 때 데리고 온 권속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 위쪽에 줄지어선 보살들은 「分別功德品」 가운데

22)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5권, 「從地涌出品」, 41a-44b.
23)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5권, 「分別功德品」, 44a-44b.
24)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5권, 「分別功德品」, 45b.
25)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5권, 「從地涌出品」, 39c-40c.

큰 보살 대중들은 칠보의 번과 일산을 드니 높고 아름다움이 천만억 가지로서 차례차례 범천에 이르며 하나하나 부처님 앞에 보배 깃대에 번을 달고 또한 천만 가지 계승으로 모든 부처님을 노래합니다.²⁶⁾의 내용을 그린 것이다. 제6면 왼쪽에는 「分別功德品」 가운데 塔堂 건립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제6면의 중앙 오른쪽에는 「安樂行品」의 계승 가운데 비구의 안락행법을 설한 내용이 도해되어 있는데, 두 그루의 큰 나무 사이에 法床 위에 앉아 좌선하고 있는 승려가 표현되어 있다.

故宮博物院本 제5권의 도상에는 「安樂行品」 가운데 전륜성왕의 髻明珠의 비유와 「如來水量品」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3.6 제6권 변상화 <그림 10>



<그림 10>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제6권 변상화, 至順元年(1330)

화면 오른쪽의 설법도는 석가의 頭頂으로부터 뺏어 나온 광명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곤 제5권과 거의 같은 모습이다.

제4면과 제5면의 상단에는 연화좌 위에 앉아 설법하고 있는 2명의 승려와 청문자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隨喜功德品」의 내용 중에 여래 열반 후에 법화경을 듣고 隨喜하여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연화좌 위에 앉은 2명의 승려 사이에는 성곽과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26)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5권, 「分別功德品」, 44c.

역시 「隨喜功德品」 가운데

50번째의 선남자·선여인이 듣고 수회한 공덕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하나의 중생들에게 南閻浮提에 가득히 채운 금·은·유리·자거·마노·산호·호박 등의 여러 가지 보물과 象車·馬車와 칠보로 지은 궁전·누각 등을 주었느니라.²⁷⁾

의 내용을 도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4면과 제5면의 중단에서부터 하단까지는 「法師功德品」 가운데

만일 선남자·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거나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쓴다면 이 사람은 마땅히 눈·귀·코·혀·몸·의식의 六根의 공덕을 얻을 것이니라. 이러한 공덕으로 六根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리라... 부모가 주신 눈으로써 삼천대천세계의 안팎에 있는 미루산과 수미산과 칠위산을 모두 보고 그 밖의 여러 산과 숲과 큰 바다와 강과 시내와 아래로는 아비지옥과 위로는 유정천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중생들을 모두 다 보게 되느니라... 법화경을 지니는 사람은 그 몸이 매우 청정하여 저 깨끗한 유리 같아서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여러 중생들과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와 지옥과 아귀와 축생들 이러한 여러 사물들이 모두 그의 몸에 나타나느니라. 여러 하늘의 궁전과 유정천과 諸山과 온갖 큰 바다의 물이 모두 그 몸에 나타나느니라.²⁸⁾

는 내용이 설법을 하는 여래의 광배에서 뻗어나간 5개의 방광으로 구획되어 그 사이사이에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제5면의 하단 왼쪽에는 비구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는 「常不輕菩薩品」의 내용을 도해한 것으로 상불경 보살이 몽둥이를 든 인물들에게 쫓기면서도 뒤돌아보며 ‘그대들은 모두 成佛할 것입니다’하고 외치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 위쪽에는 「囑累品」의 내용 가운데 석존이 보살의 머리를 만지며 경전의 유통을 부촉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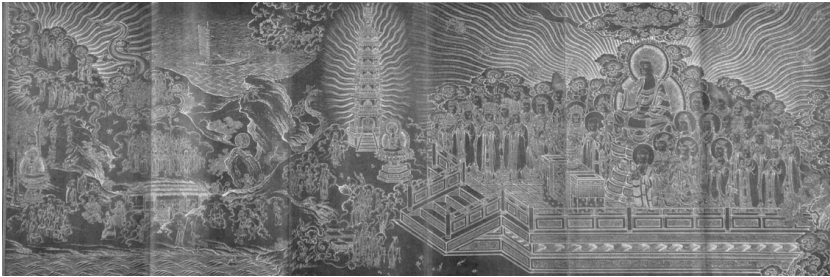
제5면 상단 왼쪽에는 「藥王菩薩本事品」 가운데 약왕보살의 전신인 喜見菩薩이 보탑을 향해 燒指供養을 하고 있는 모습이 대중들과 함께 그려져 있고, 제6면

27)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6권, 「隨喜功德品」, 46c.
28)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6권, 「法師功德品」, 47c-50a.

중앙에도 역시 「藥王菩薩本事品」 가운데 喜見菩薩의 燒身供養 장면이 그려져 있다. 제6면 상단에는 「藥王菩薩本事品」 가운데 극락세계에서의 여인의 성불장면을 그린 것으로, 여인이 연화좌 위에 앉아있고 그 앞에는 여인이 설한 藥王菩薩本事品」을 들고 찬탄하는 인물들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故宮博物院本 제6권의 도상에서는 「如來神力品」의 장면은 생략되어 있다.

3.7 제7권 변상화 <그림 11>



<그림 11>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제7권 변상화, 至順元年(1330)

화면 오른쪽의 설법도에서 釋迦如來는 香爐가 놓인 佛卓을 앞에 두고 연화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설법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앞으로 내밀고 왼손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얹어 說法印을 취하고 있다. 권속들의 구성과 배치는 제5권 및 제6권과 거의 동일하다. 수미단의 계단 앞에는 妙莊嚴王과 그의 부인인 淨德이 표현되어 있다.

제4면의 상단에는 칠보탑과 그 앞쪽 좌우에 연화좌 위에 앉은 석존과 영락을 든 보살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觀世音菩薩普門品」 가운데

관세음보살이 사부대중과 천신·용·야차·건달바·아수라·가루라·긴나라·마후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어여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뚝으로 나누어 한뚝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바치고 또 한뚝은 다보불탑에 바쳤습니다.²⁹⁾

의 내용을 도해한 것이다. 제5면 상단에서부터 아래로 이어지면서 「觀世音菩薩普門品」 가운데 「7難救濟」의 내용이 도해되어 있는데, 「7難」이라는 것은 火難, 水難, 風難, 刀杖難, 羅刹難, 枷鎖難, 怨賊難의 7가지를 의미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풀려날 수 있다는 계송의 내용이 그려져 있다.

맨 먼저 제5면 상단에는 大海 중에 배를 그려 넣어 風難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계송 가운데

혹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나려가서 용과 고기와 귀신의 난을 만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파도가 빠뜨리지 못하게 되리라.²⁹⁾

는 내용을 묘사한 것이다. 그 오른쪽에는 뇌신이 북을 두드리고 있고 그 옆에는 용이 표현되었으며, 그 아래에는 비를 피해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계송 가운데

혹 검은 구름과 천둥에 번개가 치면서 우박과 소나기가 퍼붓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잠시 사이에 흩어져서 건히게 되리라.³⁰⁾

의 내용을 도해한 것이다. 제5면 중앙에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계송 중

수미산 봉우리에 서 있을 적에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해와 같이 허공에 떠있게 되리라.³¹⁾

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제5면 하단 왼쪽에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계송 중

저주하며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려 하는 자가 있어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돌아가리라.³²⁾

29)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觀世音菩薩普門品」, 57c.
30)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觀世音菩薩普門品」, 57c.
31)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觀世音菩薩普門品」, 58a.
32)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觀世音菩薩普門品」, 57c.

의 내용을 표현한 듯 초옥 속에 3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 가운데 인물이 독약을 토해내고 있다. 그 아래쪽에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계송 중

혹 어찌다가 국법에 걸려들어서 사형을 집행하여 죽게 되어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일컬으면 칼날이 조각조각 부서지리라.³⁴⁾

는 枷鎖難의 장면을 나타낸 것이다. 그 오른쪽에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계송 가운데 怨賊難의 내용이 그려졌으며, 그 옆에는 羅刹難의 내용이 그려져 있다. 제4면과 제5면 하단에는 불구덩이에 갇힌 火難의 장면과 바다에 빠진 水難의 장면이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제5면과 제6면의 중앙에는 코끼리를 탄 普賢菩薩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普賢菩薩勸發品」 가운데

이 사람이 다니거나 섰거나 이 경을 읽고 외우면 제가 그때에 어금니 6개를 가진 흰코끼리를 타고 대보살들과 함께 그의 처소에 가서 몸을 나타내어 공양하고 수호하여 그 마음을 위로하겠습니다. 역시 범화경을 공양하기 위해서입니다.³⁵⁾

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전에서 普賢菩薩은 말세에 범화경을 수행한 자들을 수호할 것을 서원한 보살로 설해져 있다. 제6면의 중앙에는 「妙莊嚴王本事品」 가운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버지를 걱정하여 신통력을 보여라.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이 반드시 청정하여져서 우리들과 함께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갈 듯하느니라’ 이에 두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여… 몸 위에서 물을 뿜고 몸 아래서 불을 뿜으며, 몸 아래서 물을 뿜고, 몸 위에서 불을 뿜었느니라… 이렇게 갖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어서 아버지로 하여금 마음이 청정케 하여 믿게 하였느니라.³⁶⁾

33)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觀世音菩薩普門品」, 58a.

34)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觀世音菩薩普門品」, 57c.

35)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普賢菩薩勸發品」, 61a-61b.

의 내용으로 두 아들이 아버지가 바라문법에 깊이 집착해 있다는 어머니 淨德의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신통력을 보여 불교에 귀의케 했다는 묘장엄왕의 두 아들 淨藏과 淨眼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그 아래쪽에는 「妙莊嚴王本事品」 가운데

묘장엄왕은 여러 신하와 권속들을 데리고, 정덕부인은 후궁의 시녀들을 거느리고, 두 왕자는 사만 이천 사람을 데리고 한꺼번에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세 번 들고 물러가 한쪽에 앉았느니라.³⁷⁾

의 내용이 도해되어 있다.

故宮博物院本 제7권의 도상에는 「妙音菩薩品」과 「陀羅尼品」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故宮博物院本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도상을 각 장면마다 경전과 대조하여 분석해 보았는데, 같은 元代 작품인 德川美術館本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의 설화도와 비교해보면 주제선택이나 각 장면의 배치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1>

<표 1>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所藏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至順元年(1330)

卷數	品名	圖像	釋迦手印	眷屬 및 聽聞衆	卷尾變相
제 1 권	1. 序品	白毫光明相(散花) 六道衆生 지옥의 고통장면	說法印	迦葉과 阿難, 4菩薩, 四天王, 다수의 聽聞衆(舍利佛)	大功德天
	2. 方便品	佛畫 제작, 小善成佛, 奏樂供養			
제 2 권	3. 譬喻品	火宅의 비유, 經典을 비방한 罪報	說法印	迦葉, 4菩薩, 四天王, 다수의 聽聞衆(舍利佛)	大辯才天
	4. 信解品	長者와 窮子의 비유			
제 3 권	5. 藥草喻品	藥草의 비유	說法印	阿難, 4菩薩, 四天王, 다수의 聽聞衆(須菩提·大迦旃延·大迦葉·大目犍連)	東持國天
	6. 授記品	迦旃延과 大目犍連의 七寶塔 供養, 成佛의 내용			
	7. 化城喻品	梵天王的 청법 장면, 化城의 비유			

36)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妙莊嚴王本事品」, 60a.

37) 「大正新修大藏經」 「妙法蓮華經」 제7권, 「妙莊嚴王本事品」, 60b.

卷數	品名	圖像	釋迦手印	眷屬 및 聽聞衆	卷尾變相
제 4 권	8. 五百弟子授記品	五百弟子 授記 내용	禪定印	迦葉, 4菩薩, 四天王, 다수의 聽聞衆	南增長天
	9. 授學無學人記品	생략			
	10. 法師品	생략			
	11. 見寶塔品	多寶佛塔 供養, 천신들의 공양			
	12. 提婆達多品	阿私仙人과 出家, 文殊師利菩薩 涌出 장면, 八世龍女の 成佛 장면			
	13. 勸持品	생략			
제 5 권	14. 安樂行品	安樂行의 行法	釋迦-說法印 多寶-禪定印	迦葉과 阿難, 4菩薩, 四天王, 다수의 聽聞衆(彌勒)	西廣目天
	15. 從地涌出品	他方菩薩들의 의문내용 菩薩들의 涌出			
	16. 如來壽量品	생략			
	17. 分別功德品	塔堂 건립 장면			
제 6 권	18. 隨喜功德品	說法하는 장면	釋迦-說法印 多寶-禪定印	迦葉과 阿難, 4菩薩, 四天王, 다수의 聽聞衆(彌勒)	北多聞天
	19. 法師功德品	六根의 공덕			
	20. 常不輕菩薩品	常不輕菩薩의 수난 장면			
	21. 如來神力品	생략			
	22. 囑累品	經典의 流通을 咐囑			
	23. 藥王菩薩本事品	喜見菩薩의 燒指·燒身供養, 여인의 蓮花化生			
제 7 권	24. 妙音菩薩品	생략	說法印	迦葉과 阿難, 4菩薩, 四天王, 다수의 聽聞衆	韋駄天
	25. 觀世音菩薩普門品	7難救濟-風難, 枷鎖難, 水難, 火難, 羅刹難, 怨賊難, 刀杖難			
	26. 陀羅尼品	생략			
	27. 妙莊嚴王本事品	淨藏과 淨眼의 이야기			
	28. 普賢菩薩勸發品	普賢菩薩의 飛雲			

4. 變相畫의 樣式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故宮博物院本 사경은 至順元年(1330)에 제작되었는데, 經文은 紺紙金字로 書寫되었고, 變相畫는 각권의 卷頭に 金泥의 線描로 그려져 있다.

변상화는 각권의 卷頭に 총 6면에 걸쳐 그려져 있으며, 각권의 卷尾에는 天部 도상이 등장한다.³⁸⁾

변상화의 테두리는 금니의 태선-세선으로 마무리 하였는데, 이는 德川美術館本과 동일하다. 이 같은 테두리 양식은 대부분 金剛杵와 金剛輪의 연속문양대로 장식된 고려사경 변상화와는 다른 점이다.

이 寫經變相畫의 구성은 화면 오른쪽에는 釋迦說法圖, 화면 왼쪽에는 說話圖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권에서 제4권까지는 釋迦說法圖가 화면의 거의 2/3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德川美術館本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화면구성은 宋代 觀經變상화의 모티브에 영향을 받은 고려사경 변상화에서 흔히 보이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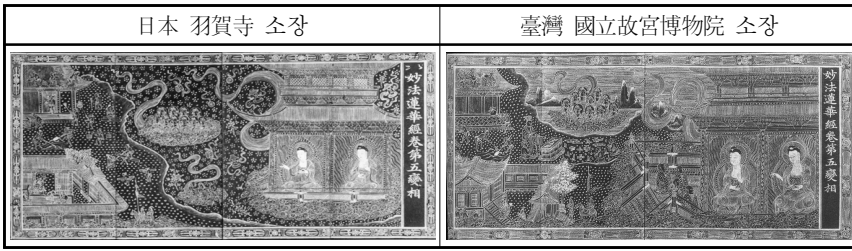
변상화의 양식분석은 설법도와 설화도로 나누어 고찰해 보겠다.

4.1 說法圖

이 사경변상화는 說法圖에 있어서 德川美術館本 寫經變相畫와는 달리 수미단이 나타나는 양식적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釋迦說法圖는 수미단 위에 석가가 권속들에게 둘러싸여 맞은편의 聽聞衆들에게 설법하는 형식을 취하는 高麗寫經變相畫와 유사하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수미단 위에 석가설법도가 등장하는 유형은 이미 宋代 「版本法華經」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경변상화의 제5권과 제6권의 경우는 석가설법도가 등장하는 宋代 「版本法華經」과는 달리 칠보탑 안에 釋迦·多寶如來가 권속·청문중들과 함께 표현되어 차이를 보인다. 이와 유사한 형식은 고려 충숙왕 12년(1325)에 제작된 日本 羽賀寺 소장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이하 羽賀寺本이라고 칭함) 가운데 제4권과 제5권 변상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羽賀寺本의 경우 권속이나 청문중의 표현은 생략되어 있다. 칠보탑 안에 釋迦·多寶如來와 함께 청문중이 등장하는 점에 있어서는 연대 불확실한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제4권과 제5권 사경변상화와 일맥 상통한다.<그림 12>

38) 卷尾의 친부 도상에 대해서는 권희경, “故宮博物院 소장 元代 法華寫經의 高麗的 影響에 관한 고찰,” 『書誌學研究』 제37집(2007. 9)에 분석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그림 12> 日本 羽賀寺 소장 / 臺灣 國立故宮博物院 소장 「妙法蓮華經」 제5권 변상화

聽聞衆은 비구·천부·재가중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聽聞衆의 크기가 권속의 크기와 거의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宋代 「版本法華經」 이래 德川美術館本이나 충숙왕대부터 공민왕대까지 제작된 고려사경 변상화에서 권속의 크기가 청문중보다 크게 표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고려사경 변상화의 경우 우왕 3년(1377)에 제작된 湖林博物館 소장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에 이르면 권속의 크기와 청문중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지는데, 이러한 특징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제작된 사경변상화에서 보편화된다.

如來의 경우 수미단 위에 佛卓을 놓고 높은 연화대좌 위에 앉아 說法印 혹은 禪定印의 手印을 취하고 있으며, 광배는 원형의 두광과 신광을 지닌다.

여래의 顔面은 高麗寫經 變相畫나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과 마찬가지로 半側面向으로 그려져 있으며, 얼굴 윤곽선과는 별도로 1조의 弧線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중 턱의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충혜왕 복위원년(1340)에 제작된 日本 鍋島報效會 소장 「妙法蓮華經」 7권본 1부(이하 鍋島報效會本이라고 칭함) 사경변상화에 등장하는 여래의 안면 표현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여래의 相好를 자세히 살펴보면 눈썹은 鐵線描를 사용하여 이중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는 德川美術館本 寫經變相畫와 동일한 특징을 보인다. 肉髻는 비교적 낮은 편이며, 호선을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螺髮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螺髮의 양식은 바깥 윤곽선만으로 螺髮임을 표현하는 고려사경 변상화와는 다른 점이다.

여래의 法衣는 通肩이며 내부에는 대부분 圓文의 花文裝飾이 그려져 있어

德川美術館本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다만 여기에서는 가슴의 ‘卍’자가 생략되어 있다.

釋迦如來의 머리 위에는 제4권 사경변상화를 제외하곤 天蓋대신 구름 속에 화문장식을 하고, 그 좌우에는 5조의 선과 波狀線을 번갈아 가며 배치하여 放光을 표현하고 있다. 天蓋의 표현이 생략되는 경우는 고려사경 변상화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德川美術館本의 경우 제4권과 제7권 변상화에서 天蓋가 구름으로 대체되고 있다.

여래의 두광과 신광은 이중원문으로 구획하고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과는 달리 광배 內緣에는 과상문을 배치하고, 外緣에는 화염문을 그려 장엄하였다. 이러한 장엄 수법은 이미 宋代 版本法華經에서 보이며, 좀더 장식적이긴 하지만 공민왕대까지 제작된 고려사경 변상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한다.

光明의 경우 如來의 頭頂으로부터 뻗어 나온 형식은 德川美術館本과 동일하지만 光明이 한 갈래로 표현된 점은 이 사경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보통 2~3갈래로 표현되는 高麗寫經 變相畫와도 다른 양식을 보인다.

佛卓의 경우 가운데 러너가 깔리고 수식이 드리개처럼 늘어져 있는 점은 宋代 「版本法華經」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만, 佛卓 위에 공양물의 표현이 생략되고 가운데 향로만 그려진 점에서 보다 단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臺座는 八角臺石 위에 연화좌가 그려지고 있어 대부분 方形臺石 위에 연화좌가 표현된 德川美術館本과는 다른 양식적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대좌형식은 宋代 「版本法華經」에서 볼 수 있으며, 고려사경 가운데 鍋島報效會本 제2권 변상화에 나타난 대좌와 가장 유사하다.

菩薩의 경우 얼굴의 모습과 합장한 자세, 보관의 형태 등에서 개성 없이 관에 박힌 듯 표현된 점은 오히려 고려사경 변상화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羅漢의 경우 高麗寫經 變相畫나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 寫經變相畫에서 처럼 여래를 중심으로 화면 오른쪽에 老比丘인 迦葉을 배치하고 맞은편에 젊은 비구인 阿難을 그려 넣고 있다.

사천왕의 경우 阿難과 迦葉 두 비구의 뒤쪽에서 배치되는 점에 있어서 德川美

術館本과 공통점을 지닌다. 사천왕은 모두 갑옷을 걸친 무장상으로 표현되는데 호법신으로서 권위를 갖춘 모습이다.

聽聞衆의 경우 배치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역시 다른 존상들과 마찬가지로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표현되어 매우 도식적인 특징을 보인다.

장식 문양의 경우 雲文은渦卷狀이 二重으로 중첩된 형태로 표현되어 와문덩 어리가 여러 개 뭉쳐있는 모습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說話圖의 내용에 따라 이중의 호선으로 연결하여 단순하게 피어오르는 듯한 형상의 涌雲文으로도 표현된다. 화면 전체에 여백이 많은 편으로 金泥의 點描로 처리된 散花의 표현이나 細線의 縱線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은 德川美術館本도 마찬가지여서 元代寫經의 경우 배경을 여백인 채로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4.2 說話圖

세부적인 면을 좀더 살펴보면, 제1권의 경우 석가여래의 頭頂으로부터 뻗어 나온 光明 내부와 放光 중에 화문장식이 나타나는데, 이는 散花를 표현한 것으로 德川美術館本이나 高麗寫經 變相畫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제2권의 경우도 譬喩品 가운데 火宅의 비유장면에서 대개 화택이 화면 왼쪽에 위치하고, 그 오른쪽에 三車가 표현되는 일반적인 형식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三車가 화택 왼쪽에 배치되어 이례적인 특징을 보인다. 또한 「譬喩品」 가운데 경전을 비방한 罪報에 관한 내용이 德川美術館本이나 高麗寫經 變相畫보다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어 이 사경의 제작자가 이 내용을 상당히 중요시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信解品」의 長者와 窮子の 비유에서 窮子가 혼절한 장면을 제외하고 다른 이야기가 모두 長者의 저택 안에 표현된 점도 이 사경만의 독특한 양식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3권의 경우 授記品 가운데 迦梅延과 大目犍連의 七寶塔 공양장면이 그려진 것은 이 사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으로 이로 인해 이 사경의 제작자가

칠보탑에 대한 공양을 상당히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제4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五百弟子授記品』 가운데 衣裏寶珠의 비유장면은 생략한 대신 석가여래가 오백제자에게 授記하는 장면을 그려 넣어 授記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圖解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提婆達多品』 가운데 국왕이 阿私仙人을 만나 出家하는 장면 역시 이 사경변상화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으로 이 내용 역시 이 사경의 제작자가 상당히 중요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제5권의 화면 오른쪽에는 석가여래와 주변에 권속들이 배치되는 일반적인 설법도 형식과는 달리 『從地涌出品』의 내용을 도해하여 釋迦·多寶如來의 二佛竝坐像이 주존으로 등장하고 주변에 권속과 청문중이 배치되는 독특한 형식을 보인다. 이는 불탑 내부에 釋迦·多寶如來의 二佛竝坐像을 배치한 羽賀寺本과도 또 다른 양식적 특징이다.

『分別功德品』 가운데 탑당건립의 장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여 목탑을 쌓아 올리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러한 묘사도 이 사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제6권에서는 『法師功德品』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으로 도해되어 있는데, 이는 법화경을 受持하고 書寫하는 공덕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현 양식 또한 여래의 광배에서 뻗어나간 5개의 光明을 구획선으로 삼아 그 사이사이에 내용을 그려 넣는 독창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제7권의 경우 『觀世音菩薩普門品』 가운데 관음보살이 釋迦如來와 多寶佛塔에 영락을 바치는 장면이 도해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이 사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으로 공양하는 것 자체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에서 故宮博物院本 紺紙金字 『妙法蓮華經』의 現狀을 살펴 元代寫經의

체제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사경변상화의 주제내용은 경전과의 대조작업을 통해 철저하게 분석하였다.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은 같은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과 고려사경 변상화와와의 비교를 통해 이 작품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경의 체제는 1면 5행이며 1행 18자로 사성되어 있어 德川美術館本 뿐만 아니라 대부분 1면 6행에 1행 17자를 이루는 고려사경의 체제와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南宋 말에서 元代에 제작된 「版本法華經」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元代 사경체제의 또 다른 유형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변상화는 각권의 卷頭に 金泥로 총 6면에 걸쳐 그려져 있어 총 4면에 걸쳐 변상화가 그려진 德川美術館本이나 고려사경과는 차이점을 보였다. 사경체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예 역시 南宋 말에서 元代에 제작된 「版本法華經」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元代에는 두 가지 유형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변상화의 화면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화면의 오른쪽에는 釋迦說法圖인 靈山會上圖가 그려지고, 화면의 왼쪽에는 각권에 해당하는 경전의 내용이 圖解되어 情景的으로 표현된 說話圖가 그려지는 형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宋代 판경변상화에서부터 비롯되어 元代寫經 및 고려사경에 두루 영향을 끼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변상화의 주제표현은 경전과의 대조작업을 통해 說話的 내용의 선택에 있어 德川美術館本이나 高麗寫經 變相畫에 비해 매우 독창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故宮博物院本이 같은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과도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경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경전을 해석하는데 있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주제선택이 서로 상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째, 변상화의 화풍은 도식화되었다기보다는 회화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러한 특징은 같은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이나 京都博物館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들 元代寫經들은 모두 배경을 散花로 채우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둔 점에서도 공통점을 지니는데, 이 또한 이들 사경이 회화적인 느낌을 주는 한 원인

으로 파악된다.

여섯째, 이 사경의 경우 각권마다 卷尾에 天部 도상이 그려져 있는데, 같은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の 경우도 각권마다 卷尾에 韋馱天 도상이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元代에 제작된 「妙法蓮華經」 사경의 경우 卷尾에 韋馱天 도상이나 天部 도상이 등장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곱째, 표지의 경우 황색비단에 남색사로 문양이 짜여 있어 동질의 종이에 금·은니로 연당초문을 표현하는 고려사경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천을 장식하여 표지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같은 元代寫經인 德川美術館本 및 京都博物館本과 동일한 특징을 지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발견된 중국 장식경의 수가 매우 적은 현실 속에서 제작 연대가 확실한 故宮博物院本 紺紙金字 「妙法蓮華經」 7권본 1부는 서사형식이나 변상화의 화풍에서 볼 때 元代寫經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權熹耕.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7집(1999. 6). 7-50.
- _____. “고려사경 妙法蓮華經 7권본 1부 變相畫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27집(2004. 6). 235-279.
- _____. “禍王 이후에 제작된 4질의 妙法蓮華經 사경의 變相畫의 내용분석.” 書誌學研究 제28집(2004. 9). 195-226.
- _____. “고려후기 개인발원 고려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 書誌學研究 제31집 (2005. 9). 153-200.
- _____. “年代 불확실한 고려후기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443-479.
- _____. 「고려의 사경」. 서울: 글고운, 2006.

- 金鍾珉. “朝鮮時代 寫經 研究.”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7.
- 김경호. 韓國의 寫經. 서울: 도서출판 고류, 2006.
- 김보형. “위대천 도상 연구: 고려·조선시대 사경화와 목판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 南權熙. 高麗時代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무비스님. 「법화경 상권·하권. 서울: 불광출판부, 2003.
- 文明大. “妙法蓮華經 寫經變相圖의 한 考察-經變相圖의 研究(2).” 『韓國佛敎學』 3(1977. 12). 125-151.
- 文明大·朴桃花. “廣德寺 妙法蓮華經 寫經變相圖의 研究.” 『佛敎美術研究』 1(1995. 1). 7-44.
- 朴桃花. “高麗金銀泥寫經畫의 樣式考察.” 『考古美術』 184(1989. 12). 19-37.
- _____. “高麗後期 寫經變相圖의 樣式變遷.” 高麗, 영원한 美. 서울: 호암미술관, 1993. 205-209.
- _____. “朝鮮 前半期 佛經版畫의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8.
- 박상국. 사경. 서울: 대원사, 1990.
- 山本泰一. “見返し繪のある中國の紺紙金字法華經-德川美術館藏.” 金鯪叢書 第八輯. 德川黎明會. 870-901.
- 神田喜一郎. “元·至元二十八年の紺紙金銀泥書華嚴經に就いて.” 美術史 40 號(昭和36年. 3月). 130-132.
- _____. “中國の裝飾經について.” 『大和文華』 第五十號(昭和44年. 4月). 1-7.
- 오가타 도모미. “平安時代 紺紙金字寫經 變相圖의 特質: 동아시아지역 작품과의 비교.” 『불교미술사학』 제3집(2005. 10). 55-68.
- 張忠植. “法華變相考.” 『韓國佛敎學』 3(1977. 12). 153-164.
- 조수진. “「妙法蓮華經」 寫經變相畫의 比較 研究-東亞細亞 三國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 黃壽永. “高麗寫經의 研究.” 『考古美術』 180(1988. 12). 51-67.

